

# SKC, 미국 PU시스템 공장 착공

2010년 가동 예정으로 2만톤 공장 건설 ... 2012년 5개 거점 4만톤

SKC가 2010년부터 미국에서 PU(Polyurethane) 원료를 생산해 현지에 직접 공급할 방침이다.

SKC는 9월25일 미국 조지아의 Covington에 폴리우레탄 시스템 하우스 공장 착공식을 가진다고 9월23일 발표했다.

폴리우레탄 시스템 하우스는 자동차 시트용, 건축, 냉장용 단열재로 사용되는 폴리우레탄의 주 원료를 생산하는 공장으로 생산능력은 2만톤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2010년 6월 완공될 예정이다.

SKC 관계자는 “한국에서 20여년 간 축적한 폴리우레탄 사업의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시장에서 경제적이고 안정적으로 제품을 공급할 계획”이라며 “특히 미국에 뿌리내린 필름사업과 함께 미국사업을 다각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SKC는 폴리우레탄 시스템 하우스 공장이 완공되면 조지아공장의 미국 현지기업을 대상으로 자동차 시트용 및 냉장, 건축 단열용 제품의 마케팅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 울산공장에서 생산하는 폴리올(Polyol) 등 정밀화학제품의 미국, 중남미 수출을 위한 거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SKC는 베이징(Beijing) 소재 공장을 포함해 2012년까지 폴란드, 동남아, 인디아 등에도 시스템하우스 공장을 건설함으로써 생산능력을 4만톤으로 확대해 2000억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할 계획이다.

조지아공장은 애틀랜타에서 40여분 거리인 Covington에 자리 잡고 있는 SKC의 미국법인으로 1996년 50만평의 부지에 건설됐다. 1999년부터 폴리에스터 필름(Polyester Film)을 생산하기 시작해 현재는 미국시장 점유율이 15%에 달해 DuPont-Teijin, Mitsubishi Chemical과 함께 메이저 3사로 성장했다.

Covington 공장의 미국 매출액은 2000년 7000만달러에 불과했으나 2006년에는 1억6000만달러를 돌파한데 이어 2008년에는 2억3000만달러로 증가했다. 2006년 처음 경상이익을 낸 이후 연평균 10% 대 이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폴리우레탄 시스템하우스 착공식에는 SKC 최신원 회장과 박장석 사장을 비롯해 조지아주 상원·하원 의원, Covington 시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9/24>